

독일, 바이오테크 분야 성장 “더디다”

독일의 Bulmahn 연방 교육과학부 장관은 최근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기술서비스 중심에서 신제품 개발 쪽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독일 바이오테크 분야는 역동적이며, 판매 가능한 제품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2002년 바이오테크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독일의 바이오테크 기업들은 처음으로 10억유로의 매출로 낮은 수준의 성장세로 돌아서고, 창업 기업수도 감소했다.

그러나 창업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기업간의 인수·합병 및 협력사례는 현저히 증가하고 있으며, 생존한 기업들의 매출과 종업원수(2001년 총 종사자수는 1만4500여명)는 각각 30%의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독일의 365개 바이오테크 기업 중 다수는 치료제, 분자감별제 등을 생산하는 적색의료에 중점을 둔 바이오테크 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며, 183개의 치료제 중 61개는 이미 임상실험 중이다.

2번째 분야는 농산품과 생필품에 적용되는 녹색 분야이며, 나머지 6%만이 미세화학제품, 분자환경 분석제품 등을 생산하는 회색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독일의 바이오테크 분포는 바이에른주(Bayern) 88개, Baden-Württemberg주 64개, Nordrhein-Westfalen주 43개, 베를린 41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Chemical Daily News 2002/ 05/ 21 >